음악에 사랑을 싣고…

전남대 예술硏 꿈나무위한 '도레미 프로젝트'

초·중생들 月 3만원에 악기 배우며 정서 함양

매주 토요일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연습실은 초등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지난 14일 찾은 연습실은 다양한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이들은 전남대 예술연구소의 '도레미-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젝트'(이하 도레미 프로젝트) 수강생들.

이유승씨가 김민수(사진 왼쪽)군과 최민혁군에게 플루트를 가르치고 있다.

피아노 연습실에서 만난 김현호(용두초 4년)군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이웃한 플루트 연습실에서는 김민수(효동초 2년)군이 지도를 받는 중이다. 피아노와 장구도 함께 배우는 민수군은 "피아노는 어릴 때 조금 배웠는데, 플루트는 난생 처음 배우는 거라 좀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예술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도레미 프로젝트'는 경제적 여건상 체계적인 클래식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신수경(전남대 피아노학과) 교수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세가지로 꼽았다. 아무래도 음악 교육은 비용도 만만찮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하는 탓에 경제 여건이 넉넉치 못한 가정엔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이런 아이들에게 저렴한 교육비로 체계적인 혜택을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소외 계층이라고 하지만 의외로 폭이 넓다. 현재 4인가족의 경우 월 수입이 39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개별통보해 주고 개별 부담금은 월 3만원이다.

또 하나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지역에서 쏟아지는 음악 관련 학과생들은 넘쳐 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도레미 프로젝트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20여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아이들은 개인당 3개의 악기를 배운다. 피아노와 합창은 공통 과목이고 취향에 따라 바이올린과 플루트, 장구와 단소 가운데 한가지씩을 배운다. 피아노는 1대 1 지도를 하고, 바이올린과 플루트는 5명씩 그룹지도를 한다. 악기는 무료로 대여해 준다.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학부모들이 피아노나 바이올린, 플루트 등만 집중강의해 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악기를 다루는 기능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장구를 배우면 음악에서 중요한 리듬감을 익힐 수 있고, 합창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협동심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일부 수강생들에게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게 '도레미 프로젝트'의 큰 목표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피아노 교사들이 담임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일일이 챙겨주고 있다. 1주일에 한차례씩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심히 들어준다. 또 학부모에게 편지도 쓰고 설문도 진행한다.

지난 8월 간단한 음악회를 열었던 아이들과 교사들은 오는 12월 좀 더 규모가 큰 무대도 준비중이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모미선(31)씨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스킨십을 자주 하며 사랑을 전해주려 한다"며 "매주 토요일 학교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도레미 프로젝트'는 광주시 북구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광주대 음악학부가 남구 지역 아동들과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전남대 예술연구소 062-530-30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재은씨.〈왼쪽〉 최재혁군

이이남씨 미디어아트로 '북한 풍자'

'최후의 만찬'

서울서 연말까지 개인전… 최후의 만찬 등 名畵에 혼 담아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씨가 오는 18일~12월13일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학고재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사이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키는 기법으로 만든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북한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신-금강전도' '신-단발령 망금강'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신-금강전도'는 금강산의 산등성이에 첨단 미래도시를 연출한 뒤 전쟁이 난 듯 수십 대의 전투기가 비행하고,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비극을 담아냈다.

또 정선의 '단발령 망금강' 작품을 디지털로 재해석한 '신-단발령 망금강'에는 단발령과 금강산을 잇는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그 소문을 듣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도포를 입고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외국 명화의 디지털 작업도 신선한 감동을 준다.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우는 여자' 속 망점을 날려버려 미술사적 비판의식을 담아냈고, 앤디워홀의 '마를린 먼로'의 트레이드마크인 입술 위 점을 아주 천천히 이동시켜 재미를 더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씨는 "이미 완료된 작품에 또 하나의 생명을 가함으로써 고전이나 현대의 걸작을 재해석한 변주의 미학"이라고 평했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출신으로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개관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2002년 하정웅 청년작가상, 제8회 광주미술상 수상, 2005년 신세계 미술상,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청년작가상 등을 받았다. 문의 02-720-15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쾌한 코믹 '라이어' 광주 상륙

22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유쾌한 코믹 연극 '라이어 1'이 광주에 온다. 22일까지(평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6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라이 쿠니 작품을 무대에 올린 '라이어 1'은 국내 공연 횟수만 3천회에 80만명 이상의 관객들 동원한 히트작이다. 국내에서 공형진·주진모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한번 시작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그린 '라이어 1'은 꽉 짜인 스토리와 배우들의 뛰어난 앙상블 연기, 쉴 새 없이 터지는 웃음 폭탄으로 관객들에게 연극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메리와 바바라 두명의 부인을 두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는 어느날 자신의 처지가 탄로날 것 같은 사건을 겪게 되면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다.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멈출줄 모르는 기관차 처럼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주변인물들이 얽히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티켓 가격 3만 5천원, 2만 5천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소희 거문고 독주회

18일 유·스퀘어문화관 유소희 거문고 독주회가 1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신쾌동류와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전바탕을 연주한 적 있는 유씨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에게 낯선 임동식편 '거문고 산조' 전바탕을 광주에서 처음 선보인다.

또 김선제씨가 작곡한 거문고 독주곡 '꿈'도 연주한다.

전남대 국악과와 조선대 음악교육과 대학원을 졸업한 유씨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거문고 수석으로 재직중이며 국악그룹 '황토제'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전주대사습 일반 기악부 차하, 동아콩쿠르 일반부 금상,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명인부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왕재·박미영씨가 함께 무대에 선다. /김미은기자 mekim@